



## < 녹취문 >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한일방직) 정학모		
면담자	곽은비	면담지원자	강인형
면담일시	2025. 09. 22.	면담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동아리실1
녹취문 작성자	곽은비	회차	2회차 (본인터뷰)

###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0~00:00:52)

곽은비: 진행을 하면 될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해 주셨지만,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동양제철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주민분들이나 학익동 일대에 옛날에 있었던 공장이나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구술 채록을 위한 인터뷰고요.  
지난주에 한 번 사전 인터뷰를 해주셨지만, 정학모 선생님께서 1차 인터뷰를 해 주시겠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장소는 미추홀학산문화원 동아리실1에서 곽은비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생략을 하고, 저희 구술 기록 위해서 정확한 생년이랑 출생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2. 구술자 개인신상 소개 (00:00:53~00:05:40)

정학모: 예. 저는 1950년생입니다. 1950년생이고, 7월 3일. 양력으로 치면. 음력으로 치면 5월 5~13일 정도 될 거예요.

현 주소로 본적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지화. 지화동요. 거기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20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어요. 내가 69년도에 졸업했거든요.

곽은비: 고등학교를 69년 졸업?

정학모: 네, 69년 2월에 졸업했어요. 상북면에서 그 면의 고등학교에서 졸업했어요. 나는 운 좋게 부산에 염색공장에 졸업하기 한 3개월에서 5개월 전에, 회사 나갔지. 인문계인데 그때 거의 대학을 못 갔으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추천돼 가지고 부산에 염색공장으로 갔어요.

곽은비: 그러면 69년.



정학모: 68년 10월달.

곽은비: 네, 68년 10월에.

정학모: 10월에 부산에 염색공장, 면직 공장이죠. 흰 천에다가 염색. 빨간 거, 노란 거하고 이렇게 색깔 내는 거. 원단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나염 켜가지고, 나염 알지요?

네 꽃무늬. 그거는 염색이 안 돼요. 염색하기는 그건 방법이 틀리지. 그거는 스크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꽃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노랑이고 이거는 파랑, 노란 거 한번 스크린하고 다음에 또 파란 거 스크린 하고.

곽은비: 실크스크린 하는 거랑.

정학모: 똑같아요. 똑같아. 간단한 거는 기계가 해요. 기계가 하면 로라<sup>1)</sup>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이거는 파란 거, 이거는 까만 거 해가지고. 염색 묻어 돌면 천에다가 찍히는 거. 스크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했어요.

우리 나는 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서 전기 혜택을 못 받고 살았어요.

곽은비: 아, 전기.

정학모: 전기가 70년대에 들어왔어. 그쪽이 굉장히 골짜기지 뭐. 지금은 그쪽이 관광지 돼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영남 알프스가 거기 바로 있어요. 영남 알프스. 그걸로 어릴 때 그쪽 산에서 나무하러도 다녀왔고 또 했어요.

그다음에 제일 높은 가지산 꼭대기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쌀바위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도 한번 나오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고 했는데 영남 알프스 바로 보이거든요.

겨울에 불 나면, 이렇게 집에서 마당이나 이렇게 보면 '아 신불산에 불 났네', '간월산에 불났네', 한 2~3km 이내니까. 시골서 옛날에 2~3km 뒤에는 별거 아니요.

한 30분 건너면은 그냥 기본이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 정도 걸어야 되니까.

### 3. 학익동에 이주하게 된 계기 (00:05:41~00:16:58)

곽은비: 그러면 그러고선 학익동에 오시게 된 연도가?

---

1) '롤러(roller)'의 옛 발음.



정학모: 군대 갔다 와 가지고 취업. 이제 먹고 살기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 시험 쳐보니 실력이 없어서 몇 번, 두 번 떨어지라니까 돈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일방직이, 그때 73년도 한일방직이, 흥한방직에서 인수했어요. 그때 인수할 때 회사가 돈이 많이, 한 1년 만에 빚 다 갚았다는 소리를 들었어. 하도 잘 돌아갔어.

그래서 우리 고향 앞에, 집 앞에. 또 한일방직 제2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하천 부지 이런 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시골 이장을 하고 계셨어. 그래서 이장을 하고 계시니까, 행정적인 걸 해줘야 안 됩니까?

외부 사람이 못하니까. 동네 사람들 도장도 받아야 되고, 면사무소에 가서는 또 확인받고. 그 상북면이 우리 '정가<sup>2)</sup>'가 많이 살아요. 정가가 산 지가 한 400년 가까이 된 집성촌이에요.

곽은비: 아

정학모: 그러니까 면장도 거의 정가가 하고. 이 정도니까. 아버지가 조금 옛날 선비고, 사람도 잘 알고 하니까 그래 소개소개 해줬던가 봐요. 그랬으니까 회장님하고 잘 알고 해가지고 (회장님이) 우리 집에 한번 왔었는데,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놓고 있다 하니까 이력서 하나 써가지고 부산 사무실 갖고 오라고 하거든. 그래서 서울로 이제 보내니까, 인천을 그냥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곽은비: 그럼 올라오신 게 그러면 몇 년인 거예요?

정학모: 76년 3월. 정확하게 3월 26일 입사했어. 정확하게 76년 3월 26일이에요.

곽은비: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뷰 해 주셨을 때, 처음에는 서울에서 일을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정학모: 원래 내가 이 이력서를 여기에 넣는 게 아니고 서울 본사에 넣었어요. 아버지가 사장도 안면이 있고 하니까요. 땅 살 때 그랬더니 축하한다고 사장님하고 다 오셨다고. 나는 그때 군대에 있을 때라 몰랐는데, 안면 있으니 이력서를 본사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사에서 써준다고 했는데. 상고랑 이렇게 뭐 좀 잘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그러니까 사장이, 회장 통해서 이력서 왔으니까 회장 라인 아닙니까? 그게 싫으니까, 인천을 보내면 뭐 싫으면 안 오겠지. 본사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뭐 취직할 데 없으니까, 또 그때 한일방직이 우리 처음 들어갈 때는 일은 힘들어도

---

2) 경상북도 울주군에 있는 '동래 정씨(東萊 鄭氏)' 집성촌. 동래 정씨의 대표적인 집성촌 중 한 곳이다.



복지라든지 이런 건 인천에서 좋다고 소문 났더라고요. 첫째가 퇴직금이 좋아요. 퇴직금이 10년 하면 17개월 받을 겁니다. 퇴직금을. 그다음에 10년 이상은 1년에 3개월치를 줍니다. 그런 복지, 그 당시에 그런 복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 저 동양화학이나 이 밑에 삼성철강인가 한국강관. 이런 건 다 12시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동양화학 같은 그런 데는, 요새 말하면 임시직, 즉 비정규직이 많았어요. 내가 그걸 확실히 들은 게, 내가 다쳤을 때 병원에 한 2주간 입원했는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동양화학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위가 안 좋아서 왔다 하는데 거기에는 정식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나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곽은비: 처음에 76년에 입사하시면서 오시게 됐을 때, 학익동 주변 풍경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정학모: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영약국<sup>3)</sup>이 지금 제일 오래됐다 안깝니까. 그다음에 학익삼거리. 저쪽 문학 쪽 가는 쪽은 비포장이었어요. 비포장이고 그다음에 그 삼거리에 고개가 3번 버스 종점이었다고요.

곽은비: 3번 인거죠?

정학모: 네 3번 버스요. 여기 보면 이쪽 길은 그때 영 시원치 않아. 인하대학 후문. 별로 안 좋았어요.

곽은비: 학익삼거리<sup>4)</sup> 있던 쪽에도 개천? 물 흐르지 않았어요?

정학모: 있었어요. 우리 술 자주 먹는 막걸리집이. 개천 위아래가 판자 깔아놓고 가건물을 했어요. 개천이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에서 삼거리 문학 쪽에는, 지금 문학구장 그쪽에 농사 지을 때요, 옛날 선인체육관.

곽은비: 맘모스 체육관

정학모: 예, 지금 헐어서 없대요. 옛날에 홍수환이가 선인체육관에서 경기 했어. 그날 여기서 외국 사람 권투시합 할 때.<sup>5)</sup> 거기 논바닥에 붓어 있더라고요. 논바닥에 붓어를 이만큼 잡아서

3) 학익동 부영약국: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11

4) 현재의 학익삼거리는 1995년까지 삼거리였다.

5) 1976년 10월 16일 권투선수 홍수환은 인천 선인체육관에서 WBA세계밴텀급타이틀전에서 '알폰소 사



회사 동료들하고 찌개 해 먹고. 요 학익동 삼거리 집에 들어가서 찌개 먹고 한 거 기억나요.  
학익동 지금 문학구장 그 밑으로는 다 농사 지었어.

곽은비: 아 네네.

정학모: 76년도 농사 지을 때, 우리 갔어. 논바닥에 보면 논에 물이 안 있습니까? 요만한  
붕어들이 있더라니까. 거기서 주워와서. 그만큼 시골이었던 거야. 시골이었어요.

곽은비: 학익동에 개천 흐르는 게,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범람하거나 넘치지는  
않았었어요?

정학모: 한 번. 큰 비 한 번 왔어. 내 기억에. 회사도 물이 막 찰 때. 그거 한 번 기억나요.

곽은비: 대략 그게 몇 년도쯤이었는데는 기억이 안 나실까요?

정학모: 78년쯤에, 왜냐하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81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이니깐.

곽은비: 그때 학익동에서 거주하셨던 곳들 주소를 한 번 더 여쭙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부영약국 뒤에서 처음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정학모: 예예. 부영 뒤.

곽은비: 그 다음에는 어디 쪽에서 사셨어요?

정학모: 햇골.

곽은비: 그 햇골이 제가 조금 헛갈리는 게, 양토마을 말고.

정학모: 양토마을이 지금 이렇게 있잖습니까. 여기 산이 이렇게 있었다고, 애는 이쪽에 요만큼  
있었어요.

---

모라'에게 12회 2분 43초만에 '멕시코'인 주심 '옥타비오 메이란'씨의 경기중단으로 TKO패했다.



곽은비: 완전 산 쪽에 있는.

정학모: 양토마을하고 요 사이에 구릉지 산이 있었어. 산이 있었어요. 요리 걸어 올라갔는데, 비탈졌지만 여기 있었네요.

곽은비: 그럼 햇골 사시다가.

정학모: 햇골 살다가 지금 학익2동 동사무소에서 해서 조금. 아까 오다 보니까, 큰 아파트 서버렸대. 옛날 일본식 주택이 있고, 그 밑에 단독주택 방 하나 얻어서 살았어요.

곽은비: 그리고 그다음

정학모: 그다음에 지금 교도소 문, 저쪽 신기촌 쪽에, 교도소 문에서 한 100m 떨어졌나? 거기 살았어요.

곽은비: 그리고선 결혼하신 걸까요?

정학모: 경기은행 뒤에, 내가 81년도 12월달에 결혼하면서 그걸로 신혼집에서.

곽은비: 81년 12월에 결혼.

정학모: 네,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얼마 안 살았지. 거기서 한 1년 반 살았나?  
83년 9월달인가 내가 아까 말했던 주안주공으로 이사 간 거예요. 우리 큰딸이 83년생이니까, 출산하기 한 달 전에 이사 간 거예요.

곽은비: 지난 번에 사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천에 살았는데, 그 예비군 때문인가 뭐 때문에 서울로 주소지를 해 놓으셨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sup>6)</sup>

정학모: 부영약국 뒤. 햇골. 하고 그다음에.

곽은비: 네, 학익2동 동사무소 뒤에.

---

6) 정학모님은 사전 인터뷰에서 주안주공아파트로 이사가기 전, 81년도까지 인천에 살았으나 예비군 훈련 때문에 주소지를 서울 형님댁으로 등록해뒀었다고 구술했다.



정학모: 동사무소 뒤에 그다음에. 이 네 군데 살 때는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사니까, 예비군 이런 연락이 안 되니까. 서울 형님 집에 주소를 두고. 그런 차에 회사 예비군이 창설됐다고. 그게 마무리. 옛날에 예비군 훈련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서울 형님 집에 주고.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형님 집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 4. 입사와 회사 생활 (00:16:59~00:26:35)

곽은비: 회사 생활하셨던 거 한번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입사 동기는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근무 연도를 아까 76년 3월 26일 입사.

정학모: 예 3월 달에. 3월 26일.

곽은비: 입사하셔서 퇴사는 언제이실까요?

정학모: 91년도인가. 91년도 3월달 일 것 같아요. 91년 3월달에. 3월 10일쯤 될 거야. 날짜가 일단.

곽은비: 그때 한일 방직 근무하시면서 맡으셨던 직무랑 역할 같은 것들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학모: 한일방직에는 사무실 하나, 사무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적과, 그다음에 직포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기관실 이게 해야 되나. 기관실. 전기, 보일러 이거 다 빼가지고 하는 큰 과가 4개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에 부장, 여기에 부장, 여기에 부장, 여기에 부장. 이렇게 있는 거지요.

사무실에 제일 높은 사람이 사무부장이고, 방적부장, 직포부장, 기관실 부장, 이렇게 있는. 원동과라고 해야되나, 보일러, 전기. 목수 그다음에 용접, 에어컨 이런 거 다 하는 설비 전체를 받아보는거).

나는 여기 직포과 근무했거든요. 직포과에는 준비부가 있고 직포부가 있어요.

곽은비: 직포과 안에 준비부랑 직포부.

정학모: 예, 준비는 직포를 짜기 위한.

7) 아마도 '영선과'를 의미하는 것 같다.



곽은비: 셋팅 같은.

정학모: 직포는 베틀 왔다 갔다 하는 기계 하나만 하는 거고. 준비는 경사를 풀 먹이는 것을 호부라고 하고. 실을 짚라카면 경사 위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sup>8)</sup>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영켜야 되는. 경사가 있고 위사. 직포는 위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곽은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학모: 뭐요?

곽은비: 위사? 이사?

정학모: 실의 경사, 위사.

곽은비: 경사, 위사

정학모: 옆으로 가는 게 위사고, 바로 가는 게 경사 아닙니까?

곽은비: 네네.

정학모: 방적은 영국식 단위예요. 그래서 전부 인치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1인치에 여기 경사를 몇 개를 할 것이냐, 그러면 1인치에 100번을 할 것이냐, 90번을 할 것이냐, 80번 할 것이냐 이걸 결정 지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40(인치)에, 80개 곱하기 40 하면 3200개. 3200개 되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사. 옆으로 1인치에 몇 번 갔다 왔다 하는 거. 이 위사는 복실이라고 하는데 복실을 감아주는 일. 복실을 감아주는 일이에요.

이거 지금 잘 몰라 카면요. 저 강화에 가면.. 저 뭐야 거기 있어요. 소창 짠 데 있어요.(강화 소창체험관)

곽은비: 네 알아요. 네네.

---

8) 천, 직물 구성 시, '위사'는 북에 의해 운반되는 가로 방향의 실(씨실), '경사'는 세로 방향의 실(날실)을 말한다.



정학모: 거기 가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거 100% 이해 가. 나도세 번 가봤는데, 일부러 내가 좋아서. 내가 하던 거, 소창 짜는 데 그 옆에 가면 옛날 방직공장 그 기계가, 직포 기계가, 옛날 거지만 거의 90% 80% 맞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 거 세 번 가봤어. 소창 짜는 데도 세 번 가봤고, 조양방직은 그냥 꺾데기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창 짠데 하고, 그 옆에 삼도직물인가 보면 그 위사 기계가 완전히 있어요. 있어요.

곽은비: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직포과에 근무하시면서.

정학모: 처음에는 위사 담당 준비부에 있었어요.

곽은비: 처음에는 준비부에서 위사를 담당하셨고.

정학모: 예, 위사. 이거는 복실. 복이 왔다갔다 하면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감아주는 기계예요. 그거 기계 했어요.

곽은비: 처음에 준비부에서 위사하시다가 그다음에는

정학모: 다음에는 호부. 이거는 경사에 호, 풀 호자야. 풀 호(糊). 풀을 먹이면 실이 딱딱해가지고 안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고. 이 실이 면이기 때문에 보푸래기<sup>9)</sup>가 많이 나요. 풀을 미리 넣으면 보푸래기가 없죠. 왜냐하면 천을 잘라 카면, 이렇게 바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풀을 단단하게 먹여놔야 (돼요). 본드도 들어가 있지 떨어지지 말라고. 그거를 했어요.

호부는 기계 한 대가 혼자 하고. 아가씨 하나 둘이서 보는데, 8시간 동안. 그 호부는 호부만.

곽은비: 그러면 퇴사하실 때까지는 호부 기계를 계속

정학모: 예, 한 5년. 한 5년 했어요.

곽은비: 호부를 5년 정도. 그전까지는 쪽 준비부에서 위사를 하셨다.

정학모: 네. 호부 할 때 이제 3교대가 된 거고. 그전에는 위사할 때는 아침 8시 반에서 5시

---

9) '보푸라기'의 경남 방언



30분 이렇게 근무했어요.

곽은비: 아침, 잠시만요. 다시 아침.

정학모: 8시 반, 8시 30분부터 5시 30분 그럼 그럼 9시간 되죠. 점심시간 1시간 빼면

곽은비: 그래서 그때 워사 근무하실 때는.

정학모: 응 주간만.

곽은비: 그 뭐였죠? 사원, 공원이었다. 사원 이렇게 막 하셨었잖아요.

정학모: 이거 하다가, 내가 그만둘 무렵에. 90년대 거의. 90년도에 내가 진급을 한 거예요.

곽은비: 그럼 진급하시면서는, 원래 공원이다가 사원이 되셨던 거죠?

정학모: 예. 원래 공장은 공원인데. 사원은 90년도 돼서 90년도 10년도 넘고 오래돼 가지고 불쌍해서 해준 거지, 뭐. 그때 명찰 한번 봤습니까?

곽은비: 네네, 맞아요.

정학모: 90년대가 된 거예요.

곽은비: 사원은 월급제고 공원은 일급제. 네 알겠습니다.

정학모: 근데 왜 일급제가 좋은가 하면, 만약에 오버 타임을 하면 일급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일급이 1500원이다, 그러면 30일 나누는데 월급제는 25일 나가요.

그러면 오버타임 시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급 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거죠.

## 5. 근무 환경 (00:26:36~00:59:40)

곽은비: 그때 한일 방식의, 공장 내에 근무 체계는 보통 3교대?

정학모: 그래요. 3교대. 3교대.



곽은비: 3교대였고. 그 3교대 시간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한 번 더 여쭙볼 수 있을까요?

정학모: 내가 두 번 말하는가 싶어 가지고 말을 자꾸 빼는데, 자꾸 물어보세요.

곽은비: 네 알겠습니다.

정학모: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2시, 2시부터 밤 10시, 밤 10시부터 이른 아침 6시. 새벽 6시. 그럼 10시부터 6시까지 이거는 야간이죠. 노동법이 야간이고, 야간 수당 받습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여기 이제 3교대. 근데 이게 제일 힘든 게 이렇게 계속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3교대죠.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아침반이 토요일 날 2시에 끝나면, 일요일 날 밤 10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두 팀이 해야 되니까, 야간반이 일요일 아침 6시에 퇴근하면 오후 반 가야 되니까, 2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 4시간 자고, 왔다 갔다 빼고 나면. 그래서 저 멀리 계양 같은 데 있는 사람은 회사 구석에서 어디 누워 자는 거야. 멀리 못 가니까.

곽은비: 한일방직 공장 규모를 지난번에는 안 여쭙봤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과 사무실, 그리고 방적과, 직포과, 그리고 기계 돌리는 원동과 해가지고 4개의 부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부서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대략 기억이 나실까요?

정학모: 제일 많을 때 한 1700명 정도 되는. 전체가.

곽은비: 전체가? 공장 전체가.

정학모: 서울 사무소는 또 따로 있었고. 영업이랑 서울 사무소는 잘 모르고.

곽은비: 1700명?

정학모: 최대 그 정도 했었고. 운영 잘 돌아갈 때, 한 1700 정도 된 것 같아요.

곽은비: 그러면 선생님 근무하셨던 직포과는 몇 명 정도였어요?



정학모: 200명. 이백몇십 명.

곽은비: 직포과 안에는 200명이었고. 준비부랑 직포부는 각각 몇 명 정도였는지 대략 기억나실까요?

정학모: 준비부는 3분의 1밖에 안 돼. 작아요.

곽은비: 그러면 직포부가 3분의 2 정도 인원.

정학모: 왜냐하면 직포기가 그때 사백몇 대니까.

곽은비: 그러면 그 안에서 선생님 일하셨던 위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셨어요?

정학모: 위사할 때 아가씨들 3교대 하면 다섯, 다섯, 15명이 했을 거예요.  
15명 넘는구나. 위사 갖다 2명 하고 하니까. 7명이구나. 7명이니까  $3 \times 7 = 21$ 명 되는구나.  
3교대 21명.

곽은비: 위사는 21명. 호부하실 때는.

정학모: 호부는 나하고 아가씨가 둘 뿐이잖아. 딱 두 명. 그다음에 검사부가 있어. 검사부.

곽은비: 검사부는 직포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부는 다른 데예요?

정학모: 판 데. 사상이라고 하는데, 베를 다 짜고 나면 흠집이 있나 없나. 천이 막 100m,  
200m 뭐야 되거든요. 이렇게 쪽 이렇게 퍼 가지고 이렇게 봐요. 결점도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거 하는 게 다섯 대.

곽은비: 검사부가 어디 소속이었던 거예요? 직포과?

정학모: 원래 원칙은 따로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기계는 우리가 다 보고.

곽은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정학모: 검사부도 사람이 몇 명이야. 7명, 8명. 한 10명 되네. 그러면 30명 되네.

곽은비: 한일방직 내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였던 것 같으세요? 대략,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정학모: 1700명에 남자 한 400 됐을까?

곽은비: 대부분 그러면 여공들이.

정학모: 네, 여공들이예요.

곽은비: 당시 월급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노동 환경은 어떠하셨는지를 한번 여쭙볼 건데. 월급이 당시에 꽤 높은 편이라고 하셨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여쭙볼 수 있을까요?

정학모: 그러니까 76년도 3월달에, 내가 처음 들어갈 때. 하루 8시간 근무하고. 4만 5천 원.

곽은비: 4만 5천 원이요.

정학모: 상여금 빼고. 계약할 때. 계약서 쓸 때. 그때 4만 5천 원. 상여금을 포함 안 시켰더라고.

곽은비: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학모: 4만 5천이 지금 따지면 뭐 한 300? 300 정도 되겠지.

곽은비: 월급으로 따지면.

정학모: 이거 때문에. 처음 가서 한 300 받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많이 받은 편 아니야. 처음인데.

곽은비: 식사는 공장 안에서 해결하셨다고 하셨죠?

정학모: 그렇지. 한 끼 무료. 우리는 아침 8시 반. 아침 먹고 출근할 거 아니예요. 그럼 점심



회사서 무료. 그다음에 이제 저녁은 집에 와서 먹고. 한 끼는 무료. 기숙사 생활하는 여공들은 한 끼는 무료였는데, 처음에는 두 끼는 티켓을 샀어요. 식권 티켓. 하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공짜. 한 88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참 그때 데모도 많이 하고 할 때. 회사가 웅웅웅웅하고 동일방직 막 크게 나고. 그 이후 같아요. 88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곽은비: 그때 기숙사 생활하는 여공들이 되게 많았다. 왜냐하면 기숙사가 다 무료로 운영이 돼서. 근데 남자분들은 기숙사가 없어서, 밖에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취를 하고. 여자 여공들은 안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혹시 기숙사에 대략 몇 명 정도 살았는지 규모가 생각나실까요?

정학모: 많을 때는 방도 좀 좁다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사람이 막 들고. 아가씨들이 결혼하고 가고 힘들어도 나가고 해가지고 (회사가 직원을) 다달이 뽑아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30명, 40명 이렇게 뽑아요.

나중에 88년 이후인가? 하여튼 몇 년도에는 사람을 못 구했어요. 사람 못 구해가지고. 저 강원도 골짜기나, 전라도 골짜기 중학교 졸업하는 데 있죠. 차로 한 50명씩 싣고 옵니다. 고등학교 야간으로 보내준다. 그다음에 야간 고등학교 학자금도 다 대준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0명씩 오니까 그때는 또 복잡할 거 아닙니까?

조금 고참들은 또 슬슬 기숙사 생활 때 고달픈 거 아닙니까? 통제해야 되니까.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벌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갖고 한 3년 지나고 방 얻을 돈 되면 그냥 나갔다가.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그랬어. 저 전라도 시골 학교 가서 싣고 오고. 저 강원도 어디서 싣고 오고 그래 했어요. 그때는.

곽은비: 혹시 공장에 어느 지역 사람이 유독 많았다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정학모: 처음에는 전라도가 좀 많았어요.

곽은비: 어디요?

정학모: 전남.

곽은비: 아, 처음에는 전남.



정학모: 회사에서 추석 때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 사람이 없으니까.

곽은비: 이후에는 그냥 전국 각지에서 그냥 다양하게.

정학모: 네, 내가 보니까. 조금 많았어요.

곽은비: 그리고 그때 일하실 때, 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을 좀 유하게 하려고 안에 습기 차고 엄청 더웠었다고.

정학모: 온도가 높아. 왜냐면 저 풀이, 옷에 풀 먹인다 이야기 들어봤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하얀 거 풀 먹여가 다리면 단단해진다고 그러지. 풀이 너무 섞여 있으면 실이 탁탁 끊어집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습도를 많이 하면, 좀 눅눅하면 이게 덜 끊어지거든요. 습기가 많으니까 또 온도도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도 이 현장에는 반팔 입고 일해요. 한여름에도. 그래서 식당이 이제 밖에 있으니까, 점심 밥 먹으러 갈 때 위에 (옷을 입고). 겨울에 내복이라는 거 한번 안 입어보고 지냈죠.

곽은비: 아, 워낙 더워서.

정학모: 내복도 안 입고 다녔어요.

곽은비: 약간 시대가 다르기는 한데, 저기 만석동에 있던 동일방직 같은 경우에는 여공 분들이 습도도 높고, 먼지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폐병도 걸리고 했다 하는데. 그것보다 현대기는 한데 한일방직 다니실 때도 그런 사건이나, 사고들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정학모: 동일방직은 사실 일제 시대에 지은 거 아닙니까? 방적과에는 다섯 부서가 있어요. 혼타면, 그다음에 소면, 그다음에 연조, 정방. 그다음에 와인딩, 권사라고 하는데.

곽은비: 연타예요?

정학모: 연조. 혼타란게 이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솜이 올 때 압축해서 탄탄하게. 탄탄하게 묶어 가지고 가요. 그럼 이거를 막 두드려 풀어. 솜이 이렇게 뭉치니까

곽은비: 뭉친 걸 이렇게.



정학모: 이거 '두드릴 타(打)'자야. 혼타가 그걸 막 풀어요. 이것들은 먼지가 무척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일제에서는 여기에 근무하는 아가씨고 남자고요. 월급 타면 돼지고기 두 근 값인가 따로 월급 줬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먼지 많이.

곽은비: 이게 와인딩 이에요?

정학모: 와인딩이에요.

곽은비: 아, 와인딩.

정학모: 우리 말로 '감을 권(捲)'. 권사. 실을 실 사(絲)자고. 권사. 이거는 뭐냐 하면 이불집에 가면 팽팽하게 솜을 다 하죠. 이불 솜 하듯이 팽팽하게 그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평평하게 이렇게 해요.

곽은비: 그러면 연조는

정학모: 연조는 이제 실가락, 옛가락같이 나와요. 옛가락 한 20개 정도 굵기죠. 조금씩 굵기는 틀리지. 왜냐하면 실 굵기가 다 틀리니까. 실 굵기가 1수부터 100수, 150수까지 나오거든요. 그 수는 솜 1파운드가 180야드인가 80야드로 나오는 실 두께를 1수라 해요. 내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나. 그거나 철사도 굵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하고 또 정방이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실 굵기를 100수 할 것이냐, 50수 할 것이냐, 45수 할 것이냐.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게 이 45수를 제일 많이 했어.

와이샤스용. 제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 권사. 와인딩. 신문이나 옛날 텔레비 보면 실에 맞게 또랑하니 이렇게 치죠. 이렇게 된 거. 그렇게 감는 거예요. 감으면 이제 상품을 나가는 거. 옛날에 보면 이거 해가지고 또 실만 그대로 염색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이 다섯 군데를 거쳐 가지고, 방적부예요.

곽은비: 그러면 환경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안 좋지는 않았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직포부 건물에 소음이 심해서 창문 막아버렸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셨는데, 한 번 다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학모: 북이라고 하는 왔다갔다 하면서 이걸 자기가 때려요. 이게 1분에 18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곽은비: 1분에 180번?

정학모: 그런 기계가 한 400여 대가 되면 이 소리가 무척 큼니다. 진짜 보통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그 문 열고 못 들어갑니다. 겁이 나서. 그래서 원칙으로 귀마개를 다 줍니다. 귀마개를 차고 이래 해야, 근데 그게 귀찮아서 됩니까?

그리고 한일방식에 이렇게 있었으면, 직포과. 이쪽이 2번지. 담장하고 거의 붙어 있었다. 이렇게 직포과가.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얼마 거리 안 돼요. 여기 창문을 이렇게 많이 내놨단 말이야. 여름에 좀 덥고 하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밤에 잘 때는 이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무실에다 막 전화하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딱 막아버렸어. 이게 몇 데시벨인지 몰라. 120 아니야, 한 180대 데시벨 정도 될 것 같아. 굉장히 시끄러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시끄러워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 안 돼요. 귀에 대놓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가씨하고도 이야기하려면 귀에 대놓고. 너무 멀리서 보면 또 키스하는 것 같아. 귀에 대놓고.

곽은비: 그쵸. 그쵸. 워낙 이렇게 가까이에서 얘기하니까.

정학모: 그만큼 소리가 커요.

곽은비: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고.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물려가지고 다치셨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산재를, 그때 15등급이었나요?

정학모: 15등급. 최고로 받았던 거. 15등급.

곽은비: 15등급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기계에 물리거나, 이런 사고들이 종종 있었었나요?

정학모: 나는 좀 큰 편. 아가씨 하나가 큰 게 하나 있어서, 내가 좀 이렇게 밀려 있었고. 뭐 아가씨들은 기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손가락 조금 끼고. 그런 간단한 거 말고는 본 적 없어. 아가씨 하나가 여기에 나처럼 팔 한번 이렇게 된 적 있었어. 크게 다쳐서 실고 나가고 그런건 없었어.



아, 한 사람 있었다. 공무과에 목수. 지붕 위에 댕기다가, 지붕이 슬레이트 아니야. 슬레이트가 꺼져서 떨어져 가지고 그 친구가 한 번 실려나간 거 기억난다. 김동석인가. 건물 비싼다 하면서는 공장 위로 걸어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레이트가 깨졌나 안 깨졌나 그거 보러 다니다가 잘못된 거고. 그거는어떻게 보면 작업상 자기 부주의로 봐야지.

곽은비: 혹시 안에서 노동 운동 같은 건 없었나요? 여공 분들이. 동일방직 사건도 80년대에 있기도 했고.

정학모: 하나 할러하다가 그냥 끝냈어. 됐는데 하면 그때 아줌마 하나가 하려 했는데. 그 아줌마 그냥 회사 그만두게 만들어 가지고 못해. 없어. 우리는 한 번도 농성, 데모 한번 못 해봤어. 왜냐면 남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지만. 다 이렇게 자기 계통만 심어 놔 가지고 꼼짝을 못하거든요. 술집에 술 먹고 술집에서 했던 말. 그날 저녁 퇴근, 그날 아침에 보면 그 윗사람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 조심할. 굉장히 숨으면서 말 조심을 하죠. 그 옆에 한국파이프 있었죠.

곽은비: 그렇죠. 네 맞아요.

정학모: 우리는 말이 조용조용한데, 이쪽에는 이만큼 높아. 완전히 싸우는 것 같아. 그만큼 시끄럽고 하는데, 쇠를 만지는 사람이 좀 억세더만. 술집에 가도 좀 틀리더라고요. 같이 먹어보면.

곽은비: 한일방직 주변에 자주 가시는 막걸리집 있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음식점이나 상권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없었는지?

정학모: 삼거리에, 지금 사거리 됐지만. 여기 인천. 주안 가는데, 이쪽에 빵집이 몇 개 있었어. 여기. 부영약국 밑에. 그게 좀 있었고. 나머지 여기는 상권이 아니었어요. 파출소 옆에 가게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그거 했을 거야. 교도소. 그거 뭐라카나 교도소 근무하는 사람.

곽은비: 교도관.

정학모: 어, 교도관이었어. 애들이 여기 가서 과자 사 먹고 노는 거요.



곽은비: 구멍가게 같은 거예요?

정학모: 네. 구멍가게였어.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었던 말이에요. 버스 내리면 여기 가서 담배 한 점 사가지고 이 길 건너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담배 사기 위해 자주 내가 들어간 거야.

곽은비: 사람들이 살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꼬방들이 많다 보니,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상권 형성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정학모: 왜냐하면 이쪽 한일방직 쪽에. 산. 지금 무슨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다 산 아니에요.

곽은비: 그쵸. 그쵸.

정학모: 그전에 화장실에서 창문으로 보면 보였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이런 하꼬방집이 하나씩 생겼어요. 70년대. 지금 풍림 여기에 넷가가 있었는데, 지금 넷가가 없더라구요. 가 보니까요. 이 넷가. 한일방직 여기. 지금 경계선하고 밑에.

곽은비: 개천 말씀하시는 거죠.

정학모: 응. 개천이 있었는데, 지금 개천이 없어졌대요. 길 좁았어. 한 명은 다니겠지만 이 정도 좁았어요. 여기 산에 아파트는 90년 이후에 있었을 거야. 내가 그만두고 난 후 많이 세워졌을 거예요.

곽은비: 그렇죠. 그렇죠. 맞죠.

정학모: 내가 91년도 그만뒀으니까. 그 이후에 선 거요. 세운 거요

곽은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학모: 저 그쪽 뒤에. 동아아파트 저 뒤에.

곽은비: 그렇죠. 그러면 한일방직이 있기 전에 흥한방직 이었는데. 그걸 한일방직이 이렇게 구매를.



정학모: 73년도에 샀어요.

곽은비: 인수.

정학모: 예. 73년도에 인수했어요.

곽은비: 인수를 했을 당시에 흥한방적에서 다니시던 분들이 그대로 좀 근무를 하셨었는지.

정학모: 내가 알기로는 몇 사람 안 돼. 남자 한 사람인가. 그 이춘구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이 2년이 있었는가 몰라. 하여튼 거의 없었어. 없었어요.

곽은비: 여공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체계다 보니까. 남자들만 그나마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한 명 정도만 있었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그때 학익동 지역 내에서 흥한방적이나 한일방직은 어떤 이미지나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학모: 흥한방적은 좀 작았었고. 그다음에 한일방직은 인수하면서. 이제 정방에 실 감는 요거를 몇 개냐, 천 개냐, 만 개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몇 만 추. 추라고 하는데 몇 만추냐, 이렇게 크기를. 방직공장은 추가 몇 개냐는 거를 가지고 그 회사 크냐, 작으냐 하고 (판단했구요). 직포는 베짜는 기계가 몇 대냐.

옛날에 영등포에 방림방적<sup>10)</sup> 같은 데는 베짜는 기계가 4천 대였다고 들었어요. 제일 큰 공장이 그정도인거예요. 근데 흥한방적은 별로 크지는 않았어. 그 창고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옛날 6.25때 총도 맞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자국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거야.

곽은비: 아, 창고 건물에.

정학모: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창고에 글 써놓은 거 보면 일본식 그림 본 것 같아. 그 창고에.

곽은비: 창고에 상량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10) 서울 영등포구에 있었던 방직공장으로, 196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던 대표적인 섬유 공장 중 하나였다. 문래동 일대에 위치했던 공장 부지는 현재 아파트 단지(문래 자이아파트)와 공공시설 등으로 개발되었다.



정학모: 네, 상량 같은 거. 그게 일본식.

곽은비: 이런 얘기는 구술 인터뷰하면서 다른 분들한테는 못 들었던 거라 되게 흥미롭네요.

정학모: 우리는 준비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창고 있는 물건을 우리가 신청도 해야 되고, 사무실에서 재료 사서 오면 창고에 일단 가는 거. 우리가 리어카 갖고 가서 싣고 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 창고에 이제 들락날락 많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내가 경사 호부이죠. 호부. 호부에 가면 일제 PVA라고 하는 게 있어. 포리비스틴, 포리, 비닐 알코올이라는. 그때 당시 국산이 안 나왔어요. 포리가 비닐이거든요. 이거를 뜨거운 걸로 녹여 가지고 실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실이 끈적할 거 아니야, 본드가 붙었으니. 우리가 창고에 가서 이제 우리 쓸 만큼 장표 끊어주고. 30포대 이렇게 싣고 와 갖고. 우리 창고에 놓고 그러니까 창고에 자연적으로 가는 거지. 여공들은 그 창고에 있다 하면 그 창고인지 뭔지는 잘 모르는 거야. 우리는 여공들이 일할 수 있도록, 물건 갖다 주고 뭐 없으면 뭐 해주고, 뒤에 고장 나면 뒤에 고장 고쳐주고, 물건 떨어지면 청구하고. 그게 우리 남자들 일이고 이래요. 기계 실 끊어지고, 붙이고는 여공 일이고. 기계 고장 난 거, 그다음에 기계 고장 나면 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 싣고 오고. 청구하고. 주로 그런 일이죠. 그다음에 기계도 1년 정기적으로 정비도 하지만은 주로 그거예요.

곽은비: 한일방식의 평판은. 예를 들어 저희 할아버지가 다니셨던 판유리 공장은 그 판유리 공장 자켓이라고 하나요? 공장 옷 입고 나가면 본인들 딸들을 주변 상인들이 소개해 줄 만큼 시집보내려고 한다. 아니면 뭐 외상을 되게 잘해줬다 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한일방식 같은 경우에 학익동에서 어떤 평판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정학모: 내가 참 재밌는 얘기할게요. 사실 옛날에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 잠바만 입고 나가도 술집에 막 했어요. 나도 울산 출신이니까. 내 친구들 다 울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다니고. 난 인천에 친척 없습니다. 친구 없습니다. 딱 내 혼자요. 그냥 혼자 내가 올라와. 아직 지금도 학교 동기고 뭐 아무도 없어요.

한일방식에는 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한일방식 다닌다 카면, 우리 아가씨 한번 소개해줘.

곽은비: 아, 방직 공장 여공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개 좀 해달라

정학모: 아가씨 취직시켜줘. 내가 딱 하나 기억 나는. 다방 아가씨 하나 내가 시켜줬어요.



곽은비: 취직시켜 달라는 것도 말하고

정학모: 그럼 내가 이력서 써가 오라 카면요. 그 위에다가 직포 정학모로 이렇게 써가 내면, 인사 담당자가 내가 (추천한) 아가씨라 하면 거의 뽑아주거든요. 그건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부정도 아닌 거.

곽은비: 그때는 그랬었죠.

정학모: 왜냐하면 첫째 거기 있는 아가씨들은 키가 커야 돼요. 공부 못해도. 글자만. 글은 한글만 알면 돼. 글도 필요 없어. 키 크고, 힘 좋고, 힘든 일이니까 머리 쓸 일은 없어요. 그거 두가지만 있으면. 성실한 거는 모르니까. 키 크고 한번 뛰어보라 해가지고 잘 뛰고 힘 좋으면 (뽑았어요). 옛날에 어느 회사가 그랬대요. 새끼줄 쳐놓고. 그 키 미달되면 안 뽑았다 하는 그런 회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직 공장이 옛날에는 못 배우고, 힘 있으면 막 벌어먹기는 제일 좋은 곳이었어. 여직원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오면 밥 줘, 잠재워줘. 회사에서 목욕 뜨신 물 다 나와. 목욕 다 해. 독한 사람은 3년만 하면 무슨 시집갈 돈도 혼자 벌어가요. 내가 하나 데리고 있던, 같이 있던 위사 아가씨는 오빠는 대학 다니고, 지가 벌어서 오빠 대학 보냈어.

곽은비: 그 정도로.

정학모: 실제로 오빠 대학 보냈어. 같이 하면서

## 6. 당시 생활상 (00:59:41 ~ 01:03:24)

곽은비: 옛날에 흥한방적 사택이 원래 파출소 있던 뒤쪽 국민주택 있는 쪽에 일본 집들이라고 해서 몇 개.

정학모: 저 농협 쪽. 그 뒤가 많았어.

곽은비: 농협 뒤쪽에 있던 일본식 집을 기억하세요?

정학모: 네네.



곽은비: 혹시 거기 가보시기도 하셨어요?

정학모: 그 집 앞에 보면 술집이 있어. 우리 정 씨라 해가지고. 그 술집이 있었어. 그때 나 총각 때고, 참새가 방앗간 안 합니까? 매일 같이. 총각 때니까.

곽은비: 그쪽에서 자취를 하신 한일방직 근무하셨던 비슷한 분들은 없으셨어요? 혹시 일본인 집에서.

정학모: 그거는 저쪽에. 저 어디야 저쪽.

곽은비: 구치소 쪽? 학익2동 동사무소 쪽?

정학모: 학익2동 동사무소. 우리 과에 같이 김재근 씨라고. 지금 나이가 얼마야. 42년생인가, 41년생인데. 일본식 집에 살았어. 자기 집이었어. 샀어.

곽은비: 학익2동 동사무소 쪽에 있는 일본인 집 쪽에서 자취를 하셨던 분은 있지만, 농협 뒤에 있던 일본. 학익사거리 농협 뒤에 있던 일본식 집은.

정학모: 한 동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안 살았어.

곽은비: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근데 그 앞에 술집이 있어서 자주 가서 그냥 보시기만 하셨었다.

그리고 그때 이것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제가 목욕탕 자주 가셨었나 여쭙보니까. 목욕을 그 안에서, 공장 안에 워낙 보일러가 잘 돼 있어서, 따신 물 잘 나와서 목욕을 하고 나오셨었다. 이런 얘기 해주셨었는데 다시 한 번. 목욕, 퇴근하시는 루트 같은 거를 좀.

정학모: 작업복 입고 현장 일을 하면 탈의실이 있어요. 탈의실이 2층이고, 목욕탕이 1층이야. 탈의실 가서 옷 벗어가 걸고, 빨가벗고 내려와서 목욕탕 가는 거야. 2층에. 그러면 거기서 뜨신 물 나오니까. 거기서 샤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 한일방직 다닐 때는 목욕탕이라는 걸 몰랐어요.

목욕탕 가본 적이 없어. 매일 뜨신 물 샤워 하니까. 그때 한참 데모 많이 할 때. 목욕탕 시설 나쁘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시중 목욕탕 시설만큼보다 더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탕도 만들어 놓고, 샤워실도 놓고, 바가지 놓듯이 해가지고.



곽은비: 외부 목욕탕을 다닌 기억이 없으시다.

정학모: 회사 다니면서 거의 없었어요. 목욕탕에 안 다녔어. 매일 목욕 하는데 뭐

곽은비: 그쵸. 말씀하셨던 것처럼 습도 유지하려고 보일러를 공장에서.

정학모: 보일러 커요.

곽은비: 가동을 잘했었다.

정학모: 그래서 보일러도 때려고 하면 보일러 면허증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곽은비: 아, 거기 보일러를 돌리려면?

정학모: 기관실. 기관 보일러 면허 있는 사람들 오는 거예요. 큰 보일러예요.

## 7. 그 외, 마무리 (01:03:25~01:10:35)

곽은비: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인데, 최근 학익동 지역이 재개발로 풍경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한일방직 자리에도 동아풍림 들어오고. 한국파이프에도 풍림아이원 들어오고.

깍동도 엑슬루가 되고. 그래서 오랜 시간 이 동네를 오가시면서 변화되는 것들에서 느껴지시는 옛날 감정이나, 요즘 좀 어떻게 이런 게 있으신지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학모: 동일레나운 상점. 옛날 거기가 기숙사였어요.

곽은비: 그렇죠 네.

정학모: 얼마 전인가, 지나가 보니까 상점도 완전히 허물어졌는데. 지그건 잘 모르겠어. 나는 이쪽이. 삼거리 이게.

곽은비: 학익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학모: 사실은 너무 아직까지 발달 안 됐어. 진짜. 저 감초한의원 해가지고 그 옆에 조금만,



조금만 내려가면, 왼쪽에 보면 아주 옛날 그 하꼬방 집이 있어. 빨리 발달 안 되고, 이쪽 길도 발달 하나도 안 됐어요. 안 됐어. 2층 집 언제 됐느냐. 78년도 여기 인천 체육대회 할 때, 전국체전 할 때. 그때 3번 버스가 (다니는) 길이 걸로(그리로) 난 거요. 인고(인천고) 앞으로 난 길. 그전에는 버스 길도 없었어요. 78년도 전국체전 한다고 그래서 2층 집 생긴 거예요. 인고 앞까지 별로 없어요. 아까 말했던 주안2동이 한참 발달해 가지고, 경기은행 그 뒤쪽 거기도 주안2동이었어요. 그거에 집 짓고 하면서 조금 발달했고, 지금 인하대학 가는 요 사거리. 그거 별 것도 없었어요. SM 정비 공장. 그때 그거는 허허벌판이었고. 신기촌 가는 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교도소 뒤에 살 때, 집에서 보면. 담이 높아. 그때는 소년 교도소였던 말이에요. 소년 교도소였는데, 그 밑에 다 밭이었어요. 이쪽은 교도소. 이쪽에 밭이 있다고. 교도소 땅이었던가 봐요. 애 뽀뽀뽀뽀 (머리 깎은) 애들이 그 일하고. 이제 그 간수들이 총 매고. 그거 다 보여.

그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보면. 출소하는 거 보면. 두부 먹이고 하는 거 집에서 그냥 보여. 내가 살던 곳이 이렇게 턱이 높아가지고. 지금은 다 없더라고. 그래서 참 안됐다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학익2동 동사무소 그쪽에 아파트. 우리 친구들 거기 단독 몇 사람 살았어요. 그 쪽에 지금 그 사람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없더라고. 지금 그쪽에는 아무것도 안 됐어 보니까. 여기 교도소에 법원 생기면서부터 조금 좋아진 거지 뭐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 인하대학교에 우리 아들 딸이 10년 전에, 우리 큰아들이 공부 끝난 거예요. 큰아들 있잖아. 내 자랑 해서 미안한데.

곽은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학모: 10년 전에 끝났어요. 우리 큰아들이 졸업하자마자 결혼해 가지고 이제 10년 됐는데.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우리 딸하고 연년생 사이인데, 우리 아들 공부 좀 잘해가지고 그때 고대 연대 떨어져 가지고, 재수 시켜가지고. 한 날 인하대 가. 한 해 인하대 간 거야. 그때 참 돈도 많이 들었어.

곽은비: 그렇죠. 아드님이 또 박사까지 하셨었잖아요.

정학모: 그러니까. 내가 딸도 (이야기) 할까요? 딸도?

곽은비: 오늘 인터뷰하시면서 못 하신 말씀이나,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정학모: 우리 아들이, 이런 계통이 있어 (전공이) 도시 개발이에요. 아들이 도시 개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데 가보라, 가서 아버지 공부하라, 뭐 하라, 나 이제 진짜 만사 귀찮아. 그래서 내가 댕기다 보니까. 최정학 교수님, 전미영 선생님, 그다음에 저 동구 가면 그 누구야 옛날 소장하던.

곽은비: 유동현.

정학모: 유동현 관장. 그런 사람들하고 강의 매번 한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 이제 조금 이제 인천이. 근데 이게 참 좋은 공부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난 솔직한 얘기로 인천 50년 살아도요. 인천 몰랐어요. 내 석사 논문 쓸 때도 인천 답사기를 썼는데, 진짜 인천 몰랐어요.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여기서 그냥 친구 만나고 술 한잔 먹고 가는 그거밖에 몰라. 그건 몰랐어. 솔직한 얘기로 이거 알고 봤더니. 인천이 어떤 거냐, 진짜 중구청에도 가보기는 가봤지만은. 진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인천역을 나는 아직까지도 하인천이라 불러요. 옛날에 하인천이었거든요. 하인천이라 불러요.

주민들이 너무 객지 생활 관심이 없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인문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8. 추가 질문 (01:10:36~01:26:43)

곽은비: 저 갑자기 추가적으로 여쭙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하나가. 하나는 파출소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렇게 담배 사서 출근하셨다 하셨는데. 그 파출소 앞 버스 정류장에는 몇 번 버스가 왔었어요?

정학모: 3번. 3번 버스 하나뿐이었어.

곽은비: 그럼 3번 버스는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버스 노선이?

정학모: 옛날에 동인천을 가는 거. 동인천.

곽은비: 동인천. 동인천 가는 구나.

정학모: 동인천에서 십정동 거기로 갔었고요. 아, 안 갔어. 주안주공 있는 곳 한 바퀴 돌았어. 옛날에. 그래서 내가 출근하려 하면 옛날 법원 있죠. 지금 가정법원 있죠. 그 앞에서 3번



타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이상, 7분 정도 걸어야 되잖아. 거기서 버스 타는 거예요. 그거 타고 동인천. 왜 학익동 깃동, 깃동 하는지 그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1차, 2차 그것 때문에 깃동이 아니고. 밤 10시 되면 차장 아가씨들이 얼마나 힘들고 졸릴 겁니까? 눈을 감고 학익, 학자 빼고 깃동, 학익. 깃동. 이게 깃동이 된 거예요. 진짜요. 이거는 진짜. 밤 10시가 넘으면 옛날 차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 깃동가요~ 깃동~ 학익동~ 말 못하고 깃동가요, 깃동, 깃동이에요. 정확히 여기 윤락가 있었다고 거기 그거하고는 틀려요.

곽은비: 또 궁금한데, 한일방직은 셔틀버스는 혹시 없었어요?

정학모: 있었어요.

곽은비: 셔틀버스는 혹시 어떻게 운행이 됐었어요?

정학모: 8시 반에. 출근하는 거는 윗사람 위주거든요. 영등포.

곽은비: 윗사람 위주.

정학모: 그때 우리 부장이 육군 대령 출신인데. 서울 학익동인가. 서울에 삼성, 강남에 학익동인가 뭐 있을 거야.

곽은비: 학여울 있는 쪽인 것 같은데

정학모: 학여울인가 뭐가. 거기에 있는 분이 영등포, 영등포역 쪽 까지 와요. 그러면 나도 그때 총각 때니까. 형님네 자고 영등포역까지 오면 그거 타고 오고. 그다음에 3교대 하는 사람들은, 아침 6시에 하면 5시 우리 집 앞에. 거기 5시에 와요. 새벽 5시. 3교대 기준

곽은비: 3교대 기준, 아침 5시 반

정학모: 아니 우체국 앞에, 5시. 5시. 내가 제일 먼저 타.

곽은비: 우체국이 남인천 우체국 말씀하시는 거죠?



정학모: 네, 거기서 타고 돌아서 동인천 북광장, 거기로 돌아요. 그러면 여기 오면 아침 5시 45분 정도 돼요. 그리고 어찌다가 이 운전수가, 아침에 못 나옵니다. 5시쯤. 5시 안 오면. 내가 아까 1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택시비도 없고, 집에 나왔고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1시간 걸린다는 소리가 내가.

곽은비: 아, 그래서. 그러면 혹시 아침 말고 3교대 기준으로 그 다음.

정학모: 저녁에도 6시에 퇴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서울까지 갔다 옵니다. 영등포까지 갔다 오고. 그다음에 밤 10시에 끝나니까, 밤 10시에 끝나는 거는 10시 40분에 출발해 가는 거야.

곽은비: 이 10시 40분 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인천 북광장, 학익동, 남인천 우체국 거치고 이렇게.

정학모: 남인천 우체국을 먼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근버스 한 대가 있었어요.

곽은비: 한 대 있었다. 버스는 관광버스만 한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작은 마이크로 버스 이런 거.

정학모: 처음엔 마이크로 사다가, 관광했어요.

곽은비: 마이크로 하다가 관광. 그러면 처음부터 셔틀이 있었어요.

정학모: 아니야 몇 년 후에.

곽은비: 그럼 한 80년대?

정학모: 그래 한 80년대 쯤 될 거예요.

곽은비: 80년대 쯤에 마이크로버스로

정학모: 아니 한 30명, 20 몇 명인가, 그거 하다 끊겼어요.

곽은비: 네네, 관광버스로.



정학모: 마이크로 할 때는 회사 차인데. 좀 뛰다가 그 사람을 내보내고 관광버스를 진입시킨 거지.

곽은비: 관광버스 한 대로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돌리는 거였구나. 셔틀도 있고, 공장 규모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복지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네요. 추가적으로 그때 이야기하셨던 게 여름 되면 하계 휴양소.

정학모: 그 사진 찾으려고.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그거 한번 찍은 그제. 우리 한일방직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 거 찍힌 거. 내가 기억나요. 천막을 크게 회사마다 다 해서, 우리 마누라도 있다 카는데, 우리 딸도 와서 봤다 카는데도 못 찾았어. 내가 그걸 갖고 오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못 찾았어.

곽은비: 나중에라도 찾으시면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강인형: 선생님 제가 하나.

곽은비: 아 네네네.

강인형: 선생님 고향이 울산이지않아요. 울산도 지금 공업 도시로 유명한 곳이고, 인천도 지금 전체는 공업도시가 아니지만. 미추홀구가 그때는 공장 지역이었잖아요. 그때 인천이랑 울산이랑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정학모: 에이, 못하죠. 그 당시에는 한참 잘 나가던 울산인데. 울산하고 여기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울산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중공업 말고도요. 옛날에 보면 이병철이 사건에서 비료 공장이라든지, xx xxx(01:17:45)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인천 여기는 공장도 아니야. 인천은 따지면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 현대 사람 몇 만 명인데, 현대 몇만 명이에요. 현대 중공업은 3만 명, 4만 명 그렇게 근무했어요. 근데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현대조선에 내가 들어가려고 신문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안전이 안 좋아가지고, 떨어져 죽으면요. 시체 푼뚨말아가버리면 가보면 끝 끝. 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고, 나는 울산이 싫었어요. 나는 서울에 살고 싶었어요. 내가 공부도 못했으니까. 애만은 SKY대를 보내야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SKY 보내면. 내가 돈 못 벌면, 도시는



알바를 할 수 있지만 시골은 알바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때 그거까지 생각했거든요. 서울 살면 두들겨 패가지고 공부 시켜갖고 들어가면, 알바 하면 되는데 울산 같은 데 알바 없어요. 그러면 서울 못 보내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내려고 하면 돈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여간 벌어가면 못 보내요. 그래서 그걸로 생각하지고. 우리 친구들 다 울산에서 다 살아요. 지금 거의 80% 울산, 부산 살아요. 그 대신 거기는 12시간 (근무).

곽은비: 그렇죠

정학모: 용접, 철강 같은 거 딱 12시간.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경공업이라서 그런지 하루 8시간 근무하니까. 조금 (쉽지요).

또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재밌는 이야기하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강인형: 고향에 대한 향수 같은 건 전혀 없으셨어요?

정학모: 지금 내가 나온 지 50년 됐어요. 50년. 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산소도 있지만은 잘 안 가지네요. 내 사촌도 있고, 6촌도 있고, 우리 동네 지화리 동네가 '정가' 한 200년 이상 정도 집성촌인데.

곽은비: 혹시 집성촌. 선생님은 어디 정씨세요?

정학모: 동래. 부산 동래. 원래 사람이 하나로만 하면 나쁜 거 아닙니까? 애들 공부시키다 보니까 내가 시간도 없고. 향수 이런 거. 나는 지금까지 호사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들 때문에 요 근래 책도 많이 읽어보고 하는데. 우리 선조들이 낮 놓고 기억자도 안 하는 놈이 무슨 그 선비, 양반이라고 그 골짜기에 앉아서 살았다. 이런 한탄이 나오더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직 젊었으니까. 나는 애들 공부 안 시키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애 둘을. 나 부모님들한테 돈 10원 안 받아봤어요. 결혼도 내가 벌어서 했고, 내가 살았지 부모, 형제에게 나 돈 10원도 안 받아봤고 혼자서 자수성가했어요. 큰 돈은 없지만은. 애 공부 이만큼 시키면 자수성가 한 거 아닙니까? 애 둘을 박사 시키면. 우리 딸도 경기여성가족재단에 있어요. 연구원이 아니라, 연구 위원이 있어요. 어제 와서 내가 30평짜리 건물 사무실에 혼자 앉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됐으면 뭐. 내가 얼마큼 더 해 줘니까? 나는 돈보다 그게 그거 뒷바라지 하하하 보니까 지금까지.

강인형: 향수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정학모: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애 공부 못 시켰어요. 솔직한 얘기로. 나 월급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한일방직은 대학까지 등록금이 다 지급됐어요.

곽은비: 아 그렇죠.

정학모: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는 일찍 그만뒀 가지고 걱정되더라고. 내가 애 대학, 내가 여기 형제도 없는데 여기 와서. 애 똑바로 대학 안 보내고 내가 바보 인생 아니냐 생각해 오기가 오더라고요. 그냥 더 독하게 사는 거지. 진짜 진짜 독하게 살았습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곽은비: 아닙니다. 전혀.

정학모: 진짜 진짜 독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내가 말 잘했나 못했나. 나는 하나도 거짓말도 없고, 부폰 것도 없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나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말하면 뒤에 누가 흥 볼 게 없어요. 술 먹어도 그냥 말만 많았지. 흥은 없어. 술 먹어도 술 취해서 말 많다 소리만 했지. 흥 보고 이런 거는 나는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내 인생살이에요.

곽은비: 지난번 사전 인터뷰했을 때보다도 훨씬 디테일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처음 제가 듣는 이야기들도 있고,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았어서. 지난번에도 길게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선생님 또 질문 혹시 하실 것 있으실까요?

강인형: 아니요.

곽은비: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저 유물 때문에 사인을 하나 더 받아야 돼 가지고, 제가 그것만 좀 가져올게요. 그러면 녹음을 끝까요? 뭐 따로 하고 해야 되나요?

강인형: 아니요. 괜찮습니다.

곽은비: 네,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학모: 콧 선생님, 우리 아들이 연락할 거 있으면 연락하라 하더라고.

곽은비: 아드님이 안 그래도 한 번. 한일 방직도.

정학모: 그때 내가 나올 때요. 3900(만원) 갖고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91년도에. 91년 같으면 여기 웬만한 32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18년 돼요.

곽은비: 한일방직 다니신 게 18년.

정학모: 그러면 10년이면 17.5개월이요. 팔려면  $3 \times 8 = 24$  24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면 34개월 치 월급 받는 거예요. 퇴직금 받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면 3400만원 아닙니까? 거짓말 할 것도 정확하게 어 내가 어디 본 거 보면 90만. 이 상여금 안 받아도 90, 89만 이 안 됩니까?

곽은비: 근데 지금 진짜 들어만 봐도. 아이들 대학까지 등록금 나오지, 하계 휴양소 해주고, 퇴직금도 많이 해줬고, 셔틀버스에다가 식사도 해주고 하는 거 보면 한일방직이 확실히 규모가 좀 있었고. 그거 조금 궁금한데, 아까 직물 짜는 게 정확히 416개.

정학모: 직기 416대.

곽은비: 그것도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정학모: 왜냐하면 기계에 일반 나열 번호가 있어.

강인형: 넘버링.

정학모: 넘버. 번호가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뭐 몇 번, 416 고장 나면 빨간 불이 들어와요. 기계가 안 돌아가면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가 재밌었어요.